

특별기고

김덕만



[오피니언]

부패방지 총괄·조정기관인 국민권익위 위원회는 올해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에 역할을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청원도 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2년 1월 부패방지기구 출범 이후 11차례나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촌지수수, 공금횡령, 인사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고교학력평가에서는 성적조작 과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육계 신뢰가 안타깝게 많이 추락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지난해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측정대상 그룹 중 최하위다. 중앙행정기관은 8.39, 16개 광역자체는 8.51, 기초자체는 8.08, 공직유관단체는 8.78 등

이다. 교육계 신뢰추락의 핵심에는 외람되거나 촌지수수를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권익위가 올 초 학부

이다. 촌지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수수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20.7%)' 등의 순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제도의 개선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이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운동부 운영, 급식재료 납품, 수학여행, 부교재 선택 등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청렴취약 분야

모두에 언급했듯이 일반인 거의 절반이 촌지를 뇌물로 보는 현실에서 교육계 스스로도 '촌지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신뢰구축 활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하겠다. 학부모회, 자모회 등 일부 자생조직에서 회비를 각출해서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공직행동강령을 제정·집행하는 권익위는 행동강령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촌지수수를 단속한다.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실내조사에 나선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초중고교 교과서에 청렴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당국과는 이미 2, 3년 전부터 교과서 편수작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아무리 강한 처벌규정과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해도 이를 지킬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어느 분야보다 청렴정신이 강조되어 할 교육계는 진정으로 맑고 깨끗한 학교마당을 만들기 위해 관행적인 잔존악습들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촌지없는 사회를 만들자

모 1천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18%가 지난 한해동안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46.8%는 학교촌지를 뇌물로 보았다.

설문 대상자들은 촌지수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54.7%가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을 꼽았고, 20.3%는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교사들보다 부모 펫이 더 큰 책임이다.

의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교감·교장 승진, 사립교 교사채용 등의 인사청탁 문제 제도 개선 과제다.

대학에서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특성화사업, 연구비, 기성회비 등 예산 부당집행이 적지 않아 이를 막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전남 소재 A대학을 포함 15개 대학은 특성화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자체 공무원과 관련 산업체 직원의 해외연수비로 부당집행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기고
횡월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복순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희망, 그것은 꿈꾸는 자의 특권이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노력으로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은 1%의 꿈꾸는 자의 것이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기능 존중 풍토 조성과 사회 일반의 인식제고 및 현대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장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009년 5

신으로 꿈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한 상상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노력하면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삶,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는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켰다. 시각장애인이며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전제덕씨, 네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이희아는 자신의 꿈을, 노력을 통해 이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슴과 머릿속 상상을 잠재우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을 꾸었기 때문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즐음하여

월 27일~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187명(지체 129명(69%), 청각 17명(9%), 시각 35명(19%), 지적 2명(1%), 기타 4명(2%))의 기능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박광태 대회장(광주광역시장)을 중심으로 이제홍 운동위원장(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장)의 총 지휘 아래 개최되며 첫째 날은 선수등록 및 개회식, 둘째 날은 경기, 셋째날은 시상식 및 폐회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입상자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지며, 전국대회에서 금상자는 국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게 되면 1위 1천200만원, 2위 600만원, 3위 400만원 장려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입상 다음 연도부터 20년간 매년 기능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관공서 및 기업체에서는 입상기능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기능장애인들이 실패에 굽하지 않는 도전정

이다. 그들은 "상상하는 순간부터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상상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뛰어난 실력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성실함과 추진력이 뛰어나야 하며 실패에 굽지 않는 정신으로 인한 열정이다.

"걸으려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강한 인함을 소유해야 하며 평가를 받으며 겸손함, 사람을 향한 사랑과 포옹, 배려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다.

둘째는 친절, 성실함 그리고 근면한 자세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며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열정이다. "피할 수 없으면 오히려 즐기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안을까 한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 총무과장>

돼지접착갈비 판매는 소비자 기만 행위

꽤지고깃집에 가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빠르고 살도 넓적한 돼지갈비가 있다. 내가 알기로는 돼지갈비 소갈비는 구워먹을 때 살과 고기가 마치 섬유질의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돼지갈비집에서 먹은 것은 갈비뼈와 살이 너무 쉽게 떨어져 버렸다. 이상하다는 의심만 가진 채 그냥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돼지갈비 뼈에 깊이 쌓여 돼지갈비를 먹을 때 같은 것을 식용 접착제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돼지갈비라고 판 돼지갈비가 실제로는 빼다꺼에 갈비가 아닌 일반 살코기를

가져다 접착제로 붙여서 갈비라고 판다. 그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수입 돼지 살에 빠리에 떪다리 살이나 목살을 갈비처럼 포를 때 사용한다면 어느 누군가 '그려려니' 생각하고 먹을까."

이처럼 일반 고기를 양념해서 갈비뼈에 접착해 팔면 소비자들은 거의 다 그게 갈비인지 일반 고기인지 구분을 못 한다. 그런 점을 악용하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마트에 가보면 너무도 똑같은 상품들이 보란 듯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러한 유사 제품은 인터넷을 떠돌며 웃음거리로 정말 양심을 가지고 영업해 주길 바란다.

<전체육·광주시 동구 서석동

을 것이다. 그러나 물지각한 일부 업체들은 자체 연구 개발해 신제품을 출시할 생각은 않고, 선발업체가 돈과 노력을 쏟아내놓은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묻어가려는 알파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 애써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상품을 베키하고 그 유명세에 편승해 돈을 벌려고 하는 상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제품마저 불신하게 하므로 이 같은 행위는 삼가야 미땅하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진 않

소비자 불신 키우는 짹통상품 없어야

주우소에서 기름을 넣었더니 사운드으로 껌을 주었다.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어진 포장을 뜯어서 썹보노리 평소 먹던 맛과 사뭇 달랐다. 혹시나 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 어처구니없게 자일리톨이 아니라 '자일리톨'이었다. 말로만 듣던 짹통이었던 것이다.

마트에 가보면 너무도 똑같은 상품들이 보란 듯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러한 유사 제품은 인터넷을 떠돌며 웃음거리로 정말 양심을 가지고 영업해 주길 바란다.

<장흥군 무산 김 양식 추진위원장>

시설

신문의 가치 일깨워 준 '신문 박람회'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47개 신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신문 월드컵'이 5일 막을 내린다.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Readers are Leaders)'는 슬로건을 걸고 펼쳐진 이 행사는 신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신문 읽기와 신문산업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신문이 그렇듯 한국 신문의 위기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신문 시장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신문의 위기는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신문 자신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객관적 미래를 위해서도 신문 읽기와 신문산업의 육성은 중요하다.

이번 신문 박람회가 읽기 문화를 확산하고 깊은 층의 신문 읽기 생활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탁상행정이 부른 무안 미술관·공원 파행

부인군의 탁상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각종 시설들이 관리인력으로 확보하지 못한 바람에 줄줄이 개관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 인원 동결규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사업을 추진한 대가다.

부안군립미술관은 개관을 코앞에 눈에 띄면서 시설과 미술품을 관리할 인력이 없어 개관을 연기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군립미술관은 원로 서양화가 오승우 회화를 부안군에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5월 개관을 목표로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5월 어린이날 맞아 개관을 준비했던 갤러리공원도 인력문제로 연기될 위기 불가피하다. 무안군은 립사르습지로 등록된 청정갯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갤러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생태공원 조성을 5월 말까지 완료해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개장할 예정이다.

無等鼓

지금 우리 사회 초기의 관심사는 '박연자 게이트'다. 전직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그동안 김 양식에 사용해온 산을 청산하는 행위로 기관화되었고, 이는 소비문화, 가격하락 등으로 이어져 김 산업이 후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친환경 안전식품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장흥군에서는 올해부터 무산 김 양식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 양식에 산을 관리적으로 사용해온 어업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시책을 추진하기까지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산으로부터 유혹을 뿌리치고 동참하여주신 어업인들이 고

인력운영방안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거라도 할 말이 없다. 무안군은 이를 시설물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역시 획일적인 규정을 강요하기에 앞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권력형 비리사건은 바로 '게이트'라는 이름을 달게 됐다. 정부 또는 정치권력, 대기업체가 개입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이나, 스캔들 또는 관련 불법 행위 등을 말할 때 흔히 '○○게이트'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게이트'가 터져나왔다. 미국 의회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설이 드러나면서 서한·미 간 외교마찰로 비화된 박동선사건, 즉 '코리아게이트'

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정권과 결부된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이 고리를 물었다.

'게이트'는 사회의 건강 척도다.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게이트'도 멈추지 않는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편집국내	사회 2부	2200-692	경영 1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18>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광고마케팅국 2200-65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 치 부 2200-634	여론조사부 2200-679	독자서비스국 2200-65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65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서울 지 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서울 지 사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2	사 전 부 2200-691	경영 2부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	